
2021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

2021. 1. 21.



외교부



목 차



I. 4년 추진성과와 평가	1
II.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	7
III. 2021년 핵심 추진과제	9
IV. 2021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	19

I. 4년 추진성과와 평가

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행 및 주변 4국과의 확대협력 외교 전개

□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출범과 진전

- 임기初 북미 간 대치국면 및 긴장된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획기적으로 전환, 대화 프로세스 창출
 - 남북미 대화를 중심축으로 추진해나가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굳건한 지지 확보 및 중·일·러의 긍정적 역할 견인
-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, 남북미 간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원칙 합의
 - 정상 간 합의를 토대로 비핵화와 평화체제·신뢰구축 조치를 함께 다뤄나가는 포괄적 협의 추진
- 주요 양·다자 고위급 회의 등 계기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

□ 주변 4국과의 확대협력 외교로 국익 실현의 외교적 공간 확장

- (미국) 한미 간 어느 때보다 긴밀한 소통·공조에 기반하여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·평화정착을 견인
 - 한미 고위급 간 소통과 신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요 고비마다 남북관계-북미관계의 선순환 및 북미 대화 추동
 - 두 차례의 미사일지침 개정('17년, '20년)으로 독자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민용 우주발사체의 자유로운 연구·개발 보장에 기여
 - 속도감 있는 주한미군 기지반환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
 - 對美 의회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해 우리 정책에 대한 美 조야 내 이해를 제고하고 초당적 지지를 확대

- (중국) 능동적 정상외교로 한중 간 교류·협력을 복원함으로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
 - 대통령 국민방중(17.12월) 계기 마련된 한중 관계 개선의 기틀을 토대로 고위급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제반 분야 교류·협력의 정상화 도모
 - 경제·환경·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국민체감형 실질협력 증진*
 - * ▲한·중 정부 간 77개 경제협약체 재가동 ▲미세먼지 대응 협력 강화 ▲코로나19 상황下 인적교류 확대 및 신속통로 최초 신설 ▲광복군 총사령부 복원(19.3월) 등

- (일본) 역사문제 대응과 함께 실질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투트랙 접근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
 - 정상 셔틀외교 복원('18년), 국무총리 방일('19.10월), 일본 신내각 출범 계기 한일 정상통화('20.9월) 등 고위급 소통·교류 지속*
 - * ('17.5월 이후 고위급 교류내역) ▲정상회담·통화 19회 ▲총리회담 2회 ▲외교장관회담 24회 등
 - 강제징용 등 쟁점현안 해소 노력을 지속하면서 영토·역사문제 (독도, 교과서, 야스쿠니신사 등) 관련 단호 대응
 - 코로나19 상황下 필수인력 교류 유지('20.10월 한일 특별입국절차 개시)*, 영사공조 등을 통해 위축된 한일 교류·협력의 복원 기반 마련
 - * 단,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한일 특별입국절차는 '21.1.14-2.7간 일시중지

- (러시아) 고위급 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기반으로 실질 협력 진전*
 - ▲국민방러('18.6월) ▲수교 30주년 계기 정상('20.9월) 및 총리('20.6월) 통화 등을 통해 고위급 소통 지속
 - * ▲「9개 다리」 행동계획 수립('19.2월) 및 갱신('20.10월) ▲한러 서비스 투자 FTA 협상 ('19.6월 개시후 5회) ▲연해주 산업단지 조성사업 이행약정 체결('20.12월) ▲한-러 지방 협력포럼 개최('18.11월, '19.9월) ▲선박공동건조 협력 지속(LNG 쇄빙선·환적설비 등)

② 국제무대에서 우리 위상 공고화

□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보건안보 협력 주도

- 코로나19 대응 우리 모범사례 공유 및 국제 보건협력 논의 선도
 - ▲정상 통화·다자 화상회의(71회) 및 외교장관 통화·다자 화상회의(107회),
▲웹세미나·영상회의·정책 자료 등을 통한 우리 방역경험 공유(801건)
 - 우리 주도로 유엔, WHO, 유네스코 차원의 우호그룹* 출범
 - * '20.5월 ▲유엔보건안보 우호그룹(뉴욕), ▲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(제네바) 및 ▲UNESCO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그룹(파리) 출범
-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「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(ODA Korea: Building TRUST)」을 통해 총 1.3억불 지원(20년)
- 역내 초국경적 보건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 주도로 「동북아 방역·보건 협력체」 출범('20.12월)

□ 평화안보, 기후변화, 개발협력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다자외교 전개

- (평화안보) 우리 주도 '여성과 함께하는 평화' 구상 출범을 통해 분쟁下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
- (기후변화) ▲제2차 P4G 정상회의 유치, ▲'푸른 하늘의 날' 지정*, ▲2050 탄소중립 선언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 선도
 - *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('19.9월)시 우리 정상의 제안을 계기로 제74차 유엔총회에서 '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(9.7)' 지정 결의안 채택('19.12월)
- (개발협력) ODA 규모 확대*를 통해 중견공여국 입지 공고화
 - * 우리 ODA 예산은 OECD DAC(개발원조위원회) 가입('10년) 이후 지난 10년 간 2배 확대('20년 3조 4,270억원)

□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지지 및 소프트파워 제고

- 창의적인 공공외교 추진을 통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문화 강국 이미지를 구축하여 한국의 소프트파워 순위 지속 상승*
 - * "모노클"誌 발표 "Soft Power Survey": ('17-'18년) 17위 → ('20-'21년) 2위

③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국민체감 외교 실현

□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서비스 강화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

- 「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」 제정('19.1월)과 관련 인프라 확충*
 - * ▲ 재외동포영사실 신설('18.3월), ▲ 해외안전지킴센터 신설('18.5월), ▲ 영사조력 제도팀 신설('20.8월), ▲ '18년 이후 영사 인력 100명 증원
- 코로나19 상황下 우리 국민 귀국 및 재외국민 확진자 지원
 - 정부 임차 전세기 마련 등 121개국 5.2만명 안전한 귀국 지원
 - ▲ 44개국 약 1.5만명 생계·학업을 위한 거주국 복귀 지원, ▲ 재외국민 확진자(약 100개국 1,400여명) 대상 비대면 의료상담 및 방역물품 지원 등
- 영사민원24('19.4월 인터넷 서비스 개시/ '20.9월 모바일앱 서비스 개시) 등 재외국민 맞춤형 민원포탈 서비스 확대*
 - * ▲ 재외국민등록 신고, 재외국민등록등본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온라인 발급, ▲ 재외공관 방문예약, ▲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, ▲ 재외공관별 민원정보 등 제공
- 역사적 특수성을 가진 동포에 대한 지원 내실화
 - ▲ 무국적 고려인의 현지국적 취득 지원, ▲ 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('20.5월), ▲ 조선적 재일동포의 모국방문 정상화 등

□ 외교정책 관련 국민과의 소통 확대 및 국민의견 수렴 기반 마련

- 국민외교 모바일앱 개시('19.6월) 및 국민외교타운 출범('20.10월) 등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온·오프라인 인프라 구축
- 국민참여행사 개최 확대를 통해 외교정책에 국민의 목소리 적극 반영*
 - * ▲ 국민참여사업, ▲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 등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기반 마련, ▲ 국민외교 포럼, ▲ 공감팩토리·자유발언대, ▲ 열린캠퍼스 등 대국민 소통 행사 확대

④ 협력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적 국익을 증진하는 외교 구현

□ 양대 지역 구상을 토대로 체감 가능한 실질 성과 거양

- (신남방) ▲ 활발한 양자·다자 정상교류*, ▲ 신남방 지역이 제2 교역국·제1 인프라 수주국으로 부상 ▲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(RCEP) 서명('20.11월), ▲ 상호 방문객 수 증가 등 전방면에서 성과**를 거양

* 우리 정상 최초로 취임 2년여 만에 신남방 11개국 순방 완료 / '19.11월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-메콩 정상회의 개최(부산)

** ▲(교역 규모) ('16년) 1,346억불 → ('19년) 1,719억불, ▲(상호 방문객 수) ('16년) 896만명 → ('19년) 1,345만명

- (신북방) ▲ 對러 신북방정책 「9개 다리」 중점협력분야(조선·인프라) 협력 진전 및 분야별 구체이행계획 합의* ▲ 한-중앙아 협력포럼을 모범적 지역협의체로 정착**

* '17.9월 우리 정상의 방러시 「9개 다리」 협력 제안, 행동계획 수립('19.2월) 및 갱신('20.10월)

** 신북방 정책 이행 핵심 틀로서 한-중앙아 협력포럼을 외교장관급 협의체로 격상 합의('20.11월)

□ 코로나19 위기 속 우리 국민의 경제활동 적극 보호

- (기업인 활동 지원) 사안별 예외입국 교섭 및 신속통로 제도화*로 23개국 약 2만 3천여 명의 우리 기업인 해외 입국 지원

* 중국('20.5.1~), UAE('20.8.5~), 인니('20.8.17~), 싱가포르('20.9.4~), 일본('20.10.8~/ '21.1.14-2.7간 일시중지), 베트남('21.1.1~)과 신속통로 운영 중

- (방역물품 수출지원) 우리 방역물품 구매·인도적 지원 등 글로벌 차원의 수요에 대응하여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추진

- (공급망 재개) 일부 국가의 봉쇄조치下,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(원부자재 조달 장애, 공장 가동 중단 등) 해소 지원으로 해외공급망 안정화에 기여

□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전략적 경제외교 실현

- 우리 전체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, 중, 일, EU 등 주요 교역국과 양자경제 협력 강화 및 경제 현안의 안정적 관리*

- * ▲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(SED) 연례 개최, ▲방한 중국인 단체관광 제한 일부 해제 및 신규 게임판호 발급(20.12월) 등 교류협력 복원 성과 달성, ▲브렉시트 대비 한-영 FTA 발효 지원 등
-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으로 신흥국과의 실질협력 업그레이드
 - (중남미) ▲對중남미 FTA 망 확대*, ▲주요 인프라 시장으로의 위상 제고**, ▲디지털 신산업 협력 기반 강화
 - * ▲태평양동맹(PA) 준회원국 가입 추진('17년), ▲한-메르코수르(MERCOSUR) 무역 협정 협상 개시('18년), ▲한-중미 FTA 발효('19년)
 - ** 對중남미 인프라 수주 추이 : '19년 0.9%(1.6억불) → '20년 22%(69.1억불)
 - (아중동) 다변화된 분야에서의 가시적 실질협력 성과 거양*
 - * ▲한-이스라엘 FTA 타결('19.8월), ▲카타르와 LNG 운반선 건조공간 건설계약('20.6월), ▲對UAE 검체채취키트 지원(약 1,600만불) 등
- 보호무역주의 확대 및 다자무역체제 약화, 코로나19 경제 위기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대응한 글로벌 공조 체제 구축*
 - * ▲코로나19 대응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, ▲포용적 무역 이니셔티브, ▲디지털 혁신 APEC 기금 창설 논의 등을 주도하고, 정상·각료 공동 선언문에 관련 문구 반영

5 국민·국의 중심 외교를 위한 외교부 혁신

- 국민이 신뢰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직 쇄신 단행
 - 공관장 자격심사 강화 및 직위 개방, 전문성·실적 중심 인사 및 민간·타부처·지자체와 인사교류 확대 등 공정·균형·개방 인사를 통한 능력중심 외교부 구현
 - '무관용 원칙' 강력 적용을 통해 성비위·갑질행위 근절 노력 및 전재외공관 대상 감사 강화
- 주요 혁신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혁신 전담 이행 조직을 신설
 - (주요 혁신과제) ▲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의 획기적 강화, ▲쌍방향 소통을 위한 국민외교 추진, ▲최전방 기지로서의 재외공관 역할 강화
 - (혁신이행) 외교부 최초 혁신 전담조직 '혁신이행팀' 신설을 통해 통합적 혁신과제 추진체계를 가동

II.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. 업무추진 여건

□ 코로나19로 인한 외교 正常化 불투명

-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가 간 인적교류 정상화 불투명
- 국가별·지역별로 코로나19 극복 시차가 발생하면서 국제연대 및 협력의 동력 약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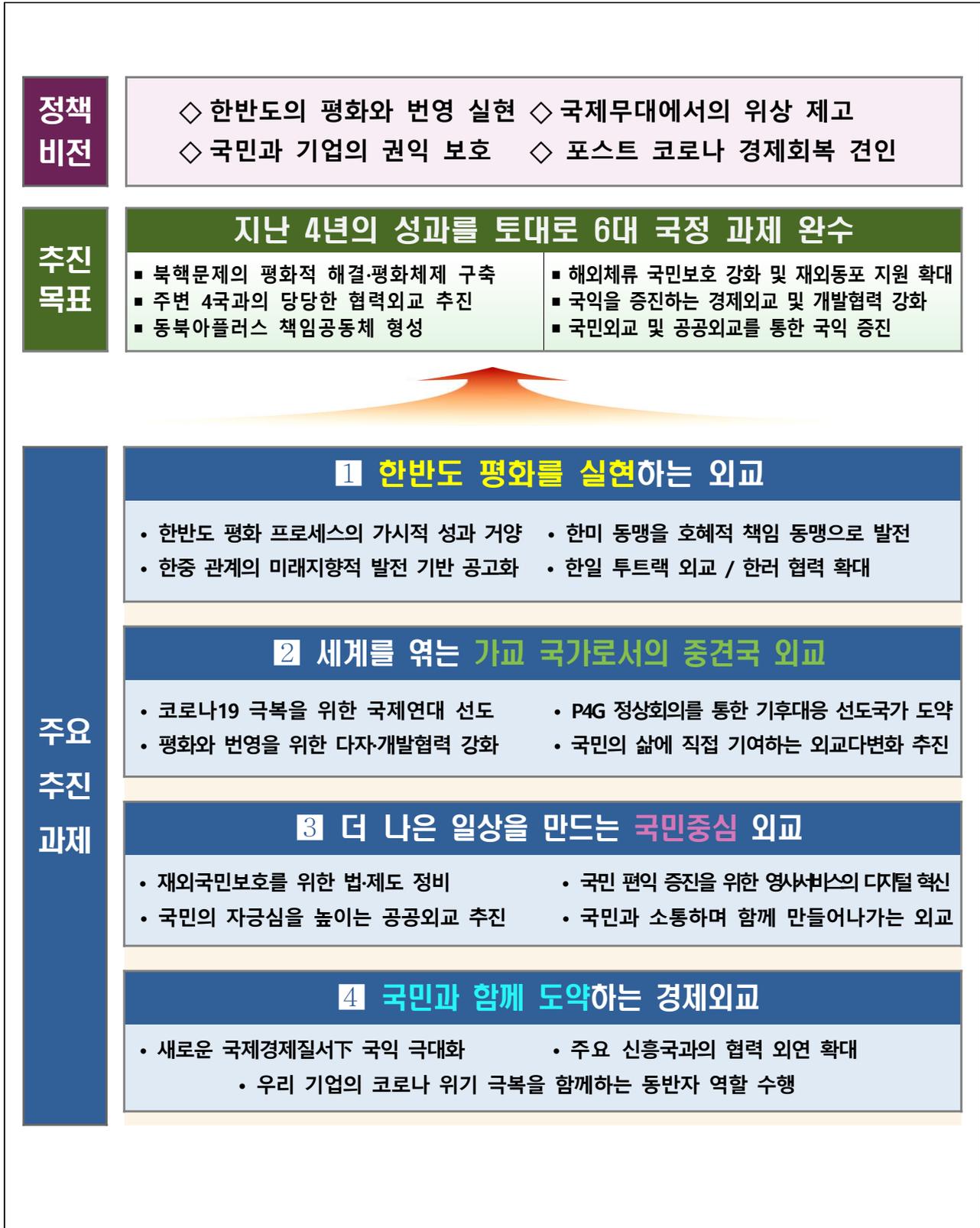
□ 국제정세 변화 가능성 하에서 다자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

- 미국 新정부 출범으로 미중 관계 등 주요국 간 관계에 변화가 예상되며, 여타 국가 간 관계 및 대외정책 방향에도 영향
- 최근 국제정세에 따라 전반적인 다자협력의 틀이 약화되어 온 바, 다자 협력 회복·재창출에 대한 의지 증가

□ 코로나19 관련 경제·영사 분야에 대한 외교 업무 수요 상승

-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이 지속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해외 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 상존
- 코로나19 극복 지역 발생시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갑작스러운 증대 가능성

2. 업무추진 방향



Ⅲ. 2021년 핵심 추진과제

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

-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 거양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
 -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
 - 한미 간 긴밀한 조율 및 중·일·러·EU·유엔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對北메시지 발신을 유도
 - 미국 新행정부와의 협의 틀 조기 구축을 토대로 한미 간 조율된 전략 성안·발전
 - 북미대화 조기 재개를 통해 실질적 비핵화 과정 돌입의 토대 마련
 - 한미 간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대화 재개 노력 집중
 - 대화 재개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안정적 추동력 확보
- 한미동맹을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·안정에 기여하는 호혜적 책임 동맹으로 발전
 -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정상 및 고위급 교류 조기 추진을 포함,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여 양 정부 간 정책적 공조 기반 공고화
 - 한미 간 현안의 호혜적·합리적 타결로 동맹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
 - 신뢰할 수 있는 동맹 파트너로서 한미 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
 - 코로나19를 포함한 글로벌 보건위협 예방·대응을 위해 한미 보건 안보 협력의 다각적 강화
 - 한미가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기후변화, 비확산, 에너지, 개발협력 등 부문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사업 발굴 확대

- 의회·학계 등 美 조야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병행하여,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 확산
 - 효율적·체계적인 對美 정책공공외교 추진을 위해 유관부처 간 소통·조율 강화 및 정보 공유 체계 마련

□ **한중 교류·협력을 전면 복원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 공고화**

- 시진핑 주석 방한 등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 메커니즘의 가동을 통해 한중관계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
- 「한중 문화 교류의 해(‘21-’22년)」를 적극 활용하여 양국 문화 교류 전면 회복 및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의 발전 모색
 - 문화·지방교류 및 공공외교 분야 민·관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양 국민 간 우호정서 증진* 및 상호 이해 제고 도모
 - * 독립사적지 보존, 중국군 유해송환 등 기존 협력사업 지속 추진
- 금년도 「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」 발족을 통해 수교 30주년(’22년) 계기 미래 한중 관계 30년의 청사진 마련

□ **투트랙 기초 견지下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노력 지속**

- 위안부문제·강제징용 쟁점 현안 해소 노력 및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 중점
- 외교당국 간 소통 지속 및 주요 계기별* 한일관계 관리·개선 도모
 - * 2021년 하계 도쿄올림픽, 한중일 정상회의(외교장관회의) 등

□ 한반도와 유라시아 평화·공동번영에 기여하는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

- 푸틴 대통령 방한 추진 등 고위급 교류 강화
- 중점협력분야 가시적 실질협력 성과 도출
 - 「9개 다리」 행동계획 2.0 중점협력분야* 사업 이행
 - * ①에너지 ②철도·인프라 ③조선 ④항만·항해 ⑤농림·수산 ⑥보건 ⑦투자 ⑧혁신 플랫폼 ⑨문화관광
 -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 가시화
 - 한러 서비스 투자 FTA 협상 진전
- 올해까지 연장된 수교 30주년 ‘한러 상호교류의 해’ 사업 이행
 - ‘신북방청년미래개척단’, ‘한러대화’ 등 교류플랫폼 활성화

□ 역내 협력의 선순환을 추동하는 소다자협력 전개

- 한중일 3국 향후 10년 협력 비전 구체화
 -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에 대한 정치적 동력 확보
 - 한중일 3국 협력과 동북아 역내 다자 대화·협력 논의 간 연계 촉진
- 「동북아 방역·보건 협력체」 및 ‘한-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’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차원의 평화·안보·생명 공동체 기반 조성
 - 북한 참여 견인을 통해 생명·안전 공동체인 남북한 간 협력 및 한반도 평화·번영 기반 강화

② 세계를 엮는 가교 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

□ 코로나19 극복 및 회복을 위한 국제연대와 협력 선도

- WHO 등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개혁을 주도하고, 보건위기시
 - ▲ 필수인력 이동 보장, ▲ 신속한 정보 공유, ▲ 정보 체계 개선에 기여
- 주요 협력국과 코로나19 극복 및 향후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안보 협력 제도화 및 네트워크 강화
- 글로벌 신안보 포럼 개최(10월경)를 통해 질병, 재난, 환경, 사이버 등 새로운 안보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주도*
 - * 코로나19 대응 정책, 경험, 기술 등을 공유·전파하여 보건안보 국제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
- 「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(ODA Korea: Building TRUST)」의 3대 분야(▲인도적 지원 ▲보건협력 ▲경제·사회적 영향 대응) 중심 지원 지속
- 백신의 국내 도입 적극 지원 및 공평한 국제적 배분에 기여
 - COVAX 메커니즘 참여 및 주요 백신개발 선도국과의 외교적 협력 등을 통해 백신 관련 국제 논의 적극 참여

□ P4G 정상회의(5월)를 통한 기후대응 선도국가로의 도약

- '탄소중립'을 향한 국제사회 의지 결집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제기후리더십 강화
 - 탄소중립 비전 및 녹색전환의 중요성을 담은 '(가칭) 서울 선언' 채택 등을 통해 녹색회복 의제 논의 선도
-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국과의 포용적 기후협력 강화
 - P4G 정상회의 계기 EU와 분야별 탄소중립 협력사업 논의 추진

- 베트남, 미얀마, 페루 등 주요 개도국들과의 양자 기후변화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 협력사업 발굴
- 한-아세안 탄소대화 수립을 통해 아세안 국가의 탄소가격제 역량 배양 지원

□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동적 다자·개발협력 강화

-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('24-'25년 임기) 추진 등 다자협력 활동 강화
 -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공조와 협력 견인*
 - * 평화유지활동(PKO) 강화를 위한 신규 공약 발굴 및 이행 현황 점검 등 목표
 - 핵비확산조약(NPT) 발효 50주년 계기 NPT 평가회의(8월)에 적극 참여하고, 군축·비확산 분야 모범국가로 위상 제고
- G7, G20, APEC, WTO 등 경제협력체에서 디지털 혁신·녹색 경제 전환·포용적 회복 논의를 선도하고 다자무역체제 강화*에 주도적 기여
 - * 한국판 뉴딜 정책과의 접점 모색을 통한 논의 주도,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 논의의 구체화
- 글로벌 가치와 국익에 기여하는 전략적 개발협력 추진
 - ODA 확대 관련 정상 공약* 이행 및 국제사회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기여
 - * ▲ '30년까지 ODA 규모 2배 확대, ▲ '22년까지 對아세안 ODA 2배 확대 공약
 - 한국판 뉴딜 등 우리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개발협력의 전략적 추진*
 - * ▲ 과학기술·ICT ODA 활성화 전략, ▲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수립 예정

□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외교다변화 추진

- 신남방정책 플러스 7대 전략 분야*에서 가시적인 성과 거양
 - * '20.11월 한-아세안 정상회의시 합의한 ▲보건 ▲교육 ▲문화 ▲무역투자 ▲농어촌 및 도시 개발 ▲미래산업 ▲비전통안보

- ▲신남방 수요를 반영한 보건협력 ▲한국판 그린 뉴딜 등 정부 핵심정책과 연계한 환경협력 ▲캄보디아, 필리핀 등 신남방 주요 국가와의 FTA 체결 관련 연내 성과 도출 ▲신남방내 한국어 진흥을 통한 지한파 인재 양성 등
 - 한-인니 CEPA(20.12.18 서명) 국회 비준동의 절차 진행 및 조기 발효 추진
 - ▲소지역협력(한-메콩 협력, 한-해양동남아 협의회 신설 추진 등)을 통해 아세안과의 상생 협력을 다층적으로 확대 ▲인도와의 「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」 심화 및 미래지향적 실질협력(4차 산업혁명, 스타트업, 보건 등) 강화
- 신북방 협력을 통한 경제협력 성과 제고 및 문화·인적교류 확대
- 기존분야(조선·에너지·인프라) 협력 강화 및 혁신·보건 등으로 협력지평 확대, 對신북방 FTA 네트워크 구축*을 통한 통상·투자 확대기반 마련
 - * ▲한러 서비스 투자 FTA 조속 타결 노력, ▲한-우즈벡 무역협정 추진
 - 한러 지방협력포럼 및 한-중앙아 협력포럼 등을 통한 교류·협력 저변 강화

③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국민중심 외교

□ 「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」 시행 원년 계기 영사조력 체계화

- 5개년 재외국민보호 기본 계획 수립 및 이행체계 마련
- 사건사고 예방 홍보 및 현장 중심의 체감형 영사조력 추진

□ 국민 편의증진을 위한 영사서비스의 디지털 혁신

- ▲비대면 서비스 확대, ▲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도입, ▲재외국민용 본인인증체계 마련 추진 등 재외국민 행정편의 확대 지속
 - 영사민원24 행정서비스 확대('20년 9종 → '21년 23종) 및 SNS 상담서비스 확대, 위치기반 서비스 고도화 등 영사콜센터 디지털화
 - 보안성·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도입
 - 여권 정보 등을 활용한 비대면 본인인증체계 시범 구축

□ 통합적·체계적 재외동포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

- 재외동포정책의 법적 근간으로서 「재외동포기본법」 제정 추진
 - '재외동포 지원 확대' 등 우리 정부 국정철학 구현 및 분절적으로 시행되어온 재외동포정책의 통합적·체계적 수립·시행
- 150여년의 해외이민역사 속 동포사회의 숙원사업인 「재외동포 교육 문화센터(서울시 마곡지구)」 건립 추진 본격화

□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공공외교 추진

- 디지털 공공외교 본격 추진을 통한 소프트파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제고
 - 비대면·디지털 공공외교 활성화를 통해 외국 대중이 우리 문화와 정책에 보다 쉽게 접근·공감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- 공공외교 다변화 및 확산 매체 다양화를 통해 글로벌 지지층 확대
 - P4G 정상회의,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등 다자외교 계기, 글로벌 이슈에 기여하는 공공외교 강화 추진

□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나가는 외교

- 국민의 외교 역량 결집 및 소통 확대를 통한 국민외교 효과성 제고
 - 국민외교센터의 대국민 개방 및 '찾아가는 국민외교 프로그램'을 통해 국민과의 접근 및 소통 강화
 - 총체적 국가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'국민외교아카데미' 신설
 - 지자체, 대학, 각계 전문가 등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국민외교 추진 기반 확대 및 국민외교 효과 제고
-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외교사안 발굴 및 외교정책 수립시 국민의견 활용
 - 빅데이터 분석 기법, 외교정책 제안공모전 등 활용

4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외교

□ 新국제경제질서 하에서의 우리 국익 극대화

- 미국 新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경제협력 파트너십 확대
 - 제6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(SED) 및 제4차 한미 민관합동경제포럼 조기 개최를 통해 新행정부와의 협력의제 적극 발굴
- 실질협력 강화를 통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
 - ▲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('21-'25년) 채택, ▲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가속화, ▲신남방·신북방 정책-일대일로 구상 간 연계협력 강화, ▲문화콘텐츠 교류·협력 복원 가속화, ▲한중 신속통로 원활 운용 및 코로나19 대응 협력 등
- 한일 간 경제·실질 분야 협력 강화
- 주요 협력대상국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보호무역조치 대응
 - ▲RCEP의 조속한 발효, ▲CPTPP 가입 적극 검토 등 역내 무역·투자 자유화 및 다자주의 체제 회복을 위한 주도적 노력 경주
 - 브렉시트 이후 한-EU/한-영 경제·통상 관계 강화 추진
 - 재외공관망 및 업계·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효과적 수입규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

□ 신흥국과의 협력 외연 확대로 국민경제 회복 견인

- (중남미) 한국판 디지털 뉴딜정책과 연계한 對중남미 실질협력 증진 및 중남미 각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 수주 적극 지원
 - ▲한-메르코수르 TA(Trade Agreement) 협상 조기 타결 및 ▲태평양동맹 준회원국 조속 가입 추진
 - ▲5G 네트워크, ▲전자정부, ▲ICT 협력, ▲사이버안보 등 협력 강화

- (아중동) 강화된 아중동 국가와의 보건·방역 협력을 우리 기업의 포스트 코로나 인프라 분야 진출 확대 기반으로 적극 활용
 - ▲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수출 확대(UAE·사우디·모로코 등) ▲가스·담수플랜트 등 인프라 분야 470억 규모 수주 노력(사우디·UAE 등)
 - ▲제5차 한-아프리카 포럼 계기 아프리카와의 경제·보건 협력 강화

□ 우리 기업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함께하는 동반자 역할 수행

-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▲애로사항(통관, 인허가, 미수금) 해소 및 ▲해외 건설 수주, ▲방산 수출, ▲유엔 조달시장 진출 등 해외시장 개척 적극 지원
 - 재외공관 각종 기업지원 회의체 온라인 개최 등 지속적인 기업 지원 활동 및 해외 취업 지원 활동 독려
- 방역역량을 유지하면서도 필수적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사안별 기업인 예외입국 교섭 및 예외입국(현 6개국 대상) 제도화 지속 추진

IV. 2021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.

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

-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 거양
- 한미 호혜적 책임동맹으로 발전, 한중 교류협력 전면복원 등

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
평화와 공동번영이 이루어집니다.

세계를 엮는 가교 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

- P4G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기후대응 선도국가로의 도약
- 코로나19 극복 및 회복을 위한 국제연대 선도

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기여하는
선도국가로 도약합니다.

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국민중심 외교

-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원년 계기 법제도 정비
-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영사서비스의 디지털 혁신

국민이 강화된 재외국민보호와 영사서비스를
피부로 느끼며 더 나은 일상을 경험합니다.

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외교

- 신국제경제질서 하에서의 우리 국익 극대화
- 신흥국과의 협력 외연 확대로 국민경제 회복 견인

우리 경제의 미래경쟁력과 역동성이 커지고
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확대됩니다.